

특별기획

한국관광공사, 12월 가볼만한 간이역에

'군산 임피역' 선정

익산농기센터,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2016년도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일 오전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장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기관장은 올 한해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 농업기계교육사업 실적 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기관에 수여됐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파 귀농·귀촌인 농기계교육을 비롯해 SNS를 이용한 임대사업 홍보, 농기계생산업체와 협업을 통한 농기계 성능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을 인정받았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공설시장 이글 청년상인 모집

군산시가 오는 28일까지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상인을 모집한다.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공설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 젊은·화합·문화·역사·가족이 공존하는 테마공간으로 재탄생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공설시장은 내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청년상인 20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식사료, 디지털, 공예품 및 체력·교육, 서비스 분야와 이밖에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업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상인 창업자로 선정되면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상임위

내년도 본예산 5억원 삭감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회에서 총 5억원이 삭감됐다.

군산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된 예산심의를 거쳐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8881억원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삭감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 이동형 블랙박스 구입 1200만원, 군산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5000만원, 군산시 폐철도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6000만원 등 35개 사업예산에 5억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삭감 없이 원안기결 후 예결위원회를 넘겼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임피역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12월에 가볼만한 간이역에 선정됐다. 군산 임피역은 '시간이 멈춰선 곳'으로 숲 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한해를 정리하기 좋은 간이역으로 인정받았다.

1924년 군산선 간이역으로 처음 문을 연 임피역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감 넘치는 형태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거점역할을 했던 아픈 경험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소설가 채만식의 대표작인 '탁류'와 '레드메이드 인생' 등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객차를 활용한 내부 전시관도 마련하는 등 군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미래 관광객들로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임피역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12월에 가볼만한 간이역에 추천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콘텐츠에 대한 홍보와 개발로 관광도시 군산의 위상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문동신 군산시장, 조선업 현안해결 국회방문

"선박건조 물량배정 요청·정부 지원책 요구 등 방안 강구해 줄 것"

군산시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선업 현안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조경태 기획재정부위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난 5일 조선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에 대해 후속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문 시장은 김관영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장병완 위원장과 조경태 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긴급토론회에서 거론된 조선조선소 존치를 위한 물량배정 문제와 선박펀드의 일정분에 대한 군산 합당에 관한 사항 금융정책 등에 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동신 시장은 "조선조선소 도크 폐쇄는 협력업체 폐업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연관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선박건조 물량배정 요청 및 정부 지원책 요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조선조선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견집을 수 없는 과장을 고려할 때 현 대중공업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자연실록 구매하고 새해 행운을 잡아라!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을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하림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하며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최고급 호텔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물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롯데마트 매장과 롯데마트몰에서

하림,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총 1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하림 2017년 붉은 닭의 해 특별이벤트 스타커가 붉은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의 이벤트 응모번호를 롯데마트 홈페이지(www.lottemat.com) 내 이벤트 페이지(google/lydfja)에 입력

하면 된다. (주)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그동안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선택하시는 고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즐거운 새해 선물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해망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달 말 준공 앞두고 마무리 공사 한창

군산시 해망동에 들어서게 될 '해망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해망 자연마당은 해망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주거지 철거 후 수년간 방치됐던 유희지에 율명공원과 연계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8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으로 복원했다.

시는 대부분이 급경사지인 사업 대상지의 지형과 토양 복원을 통해 생태기반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옹벽이 철거된 부분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연속섬유보강토 공법을 적용해 산사태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토록 시공했다. 특히 해망동의 과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해망 자연마당' 현판과 주거지 상징물을 설치해 과거와 현재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입구 광장에는 옛 우물을 복원했다.

또한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나온 돌을 활용한 돌담길은 자연과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재환경과 돌 수로 및 다단습지 등을 조성해 도심 내 생물다양성을 확보, 자연석 포장 및 나무 울타리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용객 맞춤형 기반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행복도시에 걸맞게 어린이들이 맘껏 뛰고 구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시설을 마련해 미끄럼틀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나무로 제작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 이밖에도 해망 239길 산책로, 야생화 단지와 오래된 거목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군산선의 부잔교를 모티브로 설치한 등대 전망대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황대성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해망 자연마당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 우수기관에

익산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8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군·구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관계자 및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대회 및 한방사업 우수기관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보건소에서 응모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결과 익산시가 4개 우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한방사업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함께 수상해 눈길을 모았다.

익산시보건소는 인구 고령화와 최근 만성질환 증가추세에 따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지역인 읍·면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지역주민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익산시와 익산시의사회가 협약해 추진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출산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 각 모넬로 자리 잡고, 복지부 한방난임연구사업의 중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풍, 골관절질환, 갱년기여성, 한방순회진료, 어르신 기공체조, 임신부 교실, 생리통예방 교실 등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관련 질환 예방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현을 시장은 "이번 수상은 재정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한방 의료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